

2013년도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공연예술분야 심사평

※ 본 심사평은 심의위원들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 1차 심의 : 2013. 4. 15(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 2차 심의 : 2013. 4. 29(월)~4. 30(화), 문화역서울 284 RTO공연장
- 심의위원 : 김서령, 김성희, 박상연, 안경모, 원 일, 유은선, 정순민, 조성주, 최용훈, 홍승찬

2013년도 공연예술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은 총 129명이 지원 신청하여, 1차 서면 심사와 2차 실연 및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16명의 젊은 창작자를 선정하였다.

공연예술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예술인력을 발굴하고, 기금과 시설,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기존의 일회성 프로젝트 지원과는 차별화된 인적기반 강화 사업으로, 신청자의 예술적 기량과 성장 잠재력, 프로젝트의 독창성 및 참신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되는 성취도를 심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1차 서면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동영상과 각종 자료들을 중심으로, 신청자들의 그간 작업활동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들이 향후 자신의 창작세계를 어떻게 구축하고자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차 선발된 34명 작업자들의 실연과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된 2차 심사과정에서는 프로젝트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신진 예술가 개인의 창작역량 성장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우리 공연예술계에 어떤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평가되었다. 1, 2차 심의 전 과정에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각 분야 별 전문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장르적 폐쇄성을 지양하고 형평성 보다는 탁월함의 기준에 입각하여 공연예술분야의 창의적인 예술가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젊고 유능한 예술가들로 그간 왕성한 활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관습적이고 답보적인 자기 실천에 머물러 있는 경우, 혹은 자신의 잠재력에 비하여 제출한 프로젝트 자체의 참신성과 의미성이 부족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관객과의 소통이란 관점에서는 대중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창의적인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하는 동 사업에서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우선시 하였다.

선발된 16명의 젊은 창작자는 다음과 같다.

<선정자 및 심사평>

- 연극분야: 구자혜, 윤미현, 정소정

결과적으로는, 극작가들에게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극작을 통해 자기 세계를 올곧게 투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극작이라는 과정이 프로젝트의 수행성에서 다소 비가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극작이 연극 실천의 가장 기초단위라는 점에서, 또한 극작가들의 역량지원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애써 배제하지는 않았다. 반면 연출가들의 경우는 물망에 올랐던 몇 명은 이미 해당사업의 기수혜자들이었고, 또한 연출을 미학적인 창작세계로 이해하지 않고 그 기능에만 천착하거나, 답보적인 경우가 많아 선정에서 밀리게 되었다. 이 점은 기성과 신진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구자혜는 작가로부터 출발했지만 기성 연출가들의 조연출을 수행하며 기성의 성과와 오류를 비판적으로 받아 안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의식을 실질적인 작-연출 과정으로 전환해내는 행보가 돋보였다. 작가로서 사회와 연극을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배우들의 연기세계에 대한 탐구과정이 진지했기에 심사위원들의 많은 추천이 있었고, 또한 자기 세계에만 천착된 본인의 글이 아닌 타인의 작품을 자기 세계로 가져와 연출적 모색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최종 선정되었다.

윤미현은 시-소설을 거쳐 희곡의 세계로 진입한 신진 극작가로 현실과 사회에 대한 거침 없는 비판을 독특한 극작세계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돋보였고, 최근 그 성과 또한 매우 가시적이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극작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점이 다소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작가의 자기 시선이 명확하고 그 독창적인 세계에 대한 응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최종 선정되었다.

정소정 또한 최근 주목받는 신진극작가로 젊은 세대들의 현실적 절망감을 환상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나가는 그간의 행보가 돋보였다. 특히 현실과 환상의 대비, 신화적 세계를 현실과 대비시키는 점이 극작세계를 구축하는 자기 방법론으로 기대되게 만들었다. 더불어 이미 초고와 재고를 거친 희곡으로 프로젝트의 완성을 목표한다는 점은 그 수행성과적으로도 유의미하기에 심사위원들의 많은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무용분야: 김주희, 양길호

안무분야 지원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AYAF와 차세대 공연예술인큐베이션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이 통합되고 사업의 성격이 일부 변경되면서 관심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안무자로서의 근본적인 창작적 고민들이나 기성의 공연계에 도전할만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 안무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기 위주의 제한된 교육 과정들이 창작적인 아이디어 도출이나 신진 예술가다운 도전의식을 갖기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김주희는 무용수, 배우, 안무가로 다양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창작메소드를 활용하는 창작자로서의 역량에 대해 기대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작업에서는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무자로서의 창작작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의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양길호는 한국무용 전공자로서 해외로 진출하여 유럽 유수의 무용단체에서 4년간의 객원무용수 활동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한 이력이며 향후 본인의 창작작업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직 안무가로서의 경험은 많지 않으나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력, 넘쳐나는 창작적 욕구들이 이번 사업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과 만나 긍정적인 결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음악분야: 이유진, 이은지

기존의 일반적 공연예술 형태일 경우 완성도에, 협업일 경우 기획력과 현실성에, 새로운 혹은 다양한 개념의 표현일 경우 실험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통이란 관점에서는 대중성이 고려될 수 있으나 예술성과 창의성을 우선 하였다. 예술성과 창의성은 스스로 자기를 확장함에 있어 아이디어와 그 방향이 단순 재능의 기술적 차용이 아닌 개인적 경험과 고통에서 나온 자기 것일 때 의미를 두었다.

이유진은 음악이 주체가 되는 공연예술을 개척해 보겠다는 기획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신청인의 과거 활동 과정을 보면 공감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존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결과의 성공 여부를 떠나 이 작업에 신뢰를 갖는 이유는 이 작업 과정에서도 분명 또 다른 진화된 길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은지는 음악가, 작곡가이기 전에 예술가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예술이 단지 무엇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 그가 시도하는 컨셉은 분명히 창의적이다. 그리고 한국적이란 말의 진부함과 폐쇄성에서도 해방됐음은 -사실 이는 한국 예술가가

겪어야 하는 성장통인 동시에 매우 생산적인 경험이다-예술가의 자격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나와 우리의 경계가 없어진 것 또한 예술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미래가 기대 된다.

- 전통예술분야: 박우재, 손다혜, 양승환, 이아람

전통분야 신청자들과 그들의 프로젝트들은 전체적으로 특별하거나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전공에 기반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전공실력이 탄탄한 연주자들의 기존의 음악을 넘어서 새로운 작품만들기와 음악을 보여주는 방식이나 타 장르와의 결합 또는 만남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 1차원적인 단순변형에 그치는 작품이 대다수여서 아쉬움을 남긴다.

박우재는 거문고의 전통적인 음악기반을 토대로 끊임없이 거문고의 새로운 음색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한국악기의 백악지장의 명성을 세계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흥미롭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손다혜는 이미 타루음악과 기타 뮤지컬 음악으로 인정을 받은 실력 있는 작곡가로서 국악이라는 장르를 국악 속에서 만의 발전이 아닌 타 장르와의 완성된 결합을 가능하게 할 유망주로서의 가능성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단, 2차 심사에서 보인 실연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국악작곡의 근원적인 목적과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양승환은 국악이라는 장르의 이해를 바탕으로 역시 국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과 추구하는 음악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음악 현실에 대한 이해와 자각,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아람은 대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견고한 실력을 바탕으로 대금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국악의 세계를 전통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중심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으로 선정하였다.

- 다원예술: 김소은, 김지선, 박종빈, 이희란, 최은진

김소은은 국내에서 희소한 공연 방식인 버티컬댄스 기술을 활용한 야외공연 작업을 위주로 활동해 온 작업자로, 자신의 매체가 가질 수 있는 공연예술로서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 심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설득력 있는 소재 선택과 해석, 그리고 수행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극적

이며 동시에 관념적인 카프카의 '변신'을 '공간의 환치(displacement)'라는 중심 컨셉을 적용하여 표현해 내려는 공연 계획과 이후의 지속적 연구개발 방향이 당사자 및 해당 분야의 발전과 국내 공연 양식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김지선은 사회 시스템의 틈새들을 파고들어 비판적이고 기발한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수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가로, 이번 '방공호' 프로젝트를 통해 '전쟁, 재난, 자본주의로 인한 파국 이후 생존의 방식'들을 독창적이고 세밀하게 고안 낼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와 미래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관점과 설득력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향후 국내 다원예술 분야 중 의미 있는 일부를 감당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박종빈은 장소특정적인 프로젝트 '전야'의 구상과 초안을 통해 모종의 사건이 보유한 징후와 시간,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 정서에 대한 작가로서의 민감한 관찰력을 보여주었으며, 더불어 배우만 없는 무대(혹은 연극)에서 관객이 작품의 주체가 되는 시도 역시 참신한 실험으로서의 면모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희란은 기존의 퍼포먼스 공연 등의 포맷 안에서 주제 의식과 형식의 균형을 조절해가는 능력이 돋보이는 작가로 움직임, 설치미술, 영상, 연극 등이 융합되어 장소특정적인 형식으로 드러나게 될 'The Red Cow Singing a Lullaby' 계획을 통하여 다원예술을 소통을 위한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과 작가의식에 주목하였다.

최은진은 무용, 연극, 영상 등에 걸쳐 각기 일반적 수위 이상의 심도 깊은 연구와 실행을 지속해오면서 개별적,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다양한 형식의 창작작업을 펼쳐온 작가로, 그 연장 선 상에서 계획하고 있는 '언어와 몸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실천적인 실험의 본질적 가치와 과정이 드러내는 설득력과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공연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